

## 스마트 럭셔리가 뜬다

2010-04-17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집에 고이 모셔놓기 위해 명품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명품에도 실용성을 갖춰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일명 '스마트 럭셔리'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신연후 서울럭셔리비즈니스스쿨(SLBI) 교수가 내린 최근 명품시장 동향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스마트 럭셔리'란 표현이 눈길을 끈다. 실용적이면서 명품의 가치는 유지하는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매경이코노미는 '스마트 럭셔리'에 부합하는 브랜드들을 꼽아봤다.



### '실용성 강조' 오바마, 출장 때 즐겨 사용

투미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75년 가족 수입업체로 출발했다. 비즈니스용과 여행용 가방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우면서 빠른 시간 내에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투미라는 말도 성공과 행운을 가져오는 페루의 신 이름에서 유래한다. 투미 제품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투미는 디자인으로만 승부하지 않았다.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마련해 비즈니스맨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시켰다.

투미 가방 제작에 들어간 특허 기술만 해도 25가지다. 일례로 투미 제품은 방탄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 마모에 강하다. 기존 제품보다 4~5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방 손잡이도 우주선용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됐다. 그만큼 가볍고 튼튼하다.

투미 제품 중에서도 알파(Alpha) 서류가방은 단연 돋보인다. 지난해 국내 판매수량 기준 1위를 차지했다. 기능성이 뛰어나 비즈니스맨들과 CEO들이 편리하게 갖고 다닐 수 있다. 실용성과 기능성 대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유명하다. 서류가방은 30만~100만원대. 글로브 탠(Glove-Tanned) 가죽으로 만들어 오래 사용할수록 자연스런 태닝 효과도 나타난다. 그래서일까. 실용성을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가방을 갖고 다니는 것이 미국 언론에 포착돼 더 유명세를 탔다.

투미의 대표적인 알파 컬렉션에는 서류가방 외에도 여행용 캐리어가 있다. 스마트한 기능성이 탑재된 여행용 캐리어의 가격대는 80만~100만원대.

여성들을 위한 제품도 마련돼 있다. 빌라(Villa) 컬렉션은 기능성과 함께 감각적인 스타일을 원하는 커리어우먼들이 선호한다. 견고하면서도 관리가 용이한 TCC(Textured Coated Canvas) 소재를 사용했다. 30일 이상의 가공기간이 필요한 베체타 가죽으로 마무리했다. 노트북과 A4파일이 들어갈 수 있는 수납공간에 휴대폰, 펜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가 별도로 있어 실용성도 갖췄다.

신연후 교수는 "브랜드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디자인과 실용성 면에서 따라올 제품이 없다. 투미 가방을 들고 있으면 일 잘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잘 어울린다"라고 말했다.

### 체형·무게·시간 따라 '스마트 스프링'

국내에서는 썬리 침대가 생소하다. 매트리스만 생산하다 보니 국내에는 알려질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침대 매트리스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881년 설립된 썬리는 1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침대다. 썬리 침대의 강점은 스프링에 있다. 최적의 자세로 딱 맞게 받쳐주는 포스처텍 스프링(PostureTech Coil)은 '스마트 스프링'으로 불릴 만하다.

김인호 썬리코리아 사장은 "썬리 침대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해 더 유명해졌다. 미국 썬리 본사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USA투데이와 뉴욕타임스에 '대통령의 고된 업무 가운데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썬리 침대가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이를 계기로 백악관과 캠프 데이비드에는 썬리 침대가 들어가 있다"며 썬리 침대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썬리 침대는 센서리 암(Sensory Arm) 기능을 갖춰 무거운 신체 부위는 더욱 강하게 지지해주고, 가벼운 부위는 부드럽게 받쳐준다. 체형, 무게, 시간에 따라 받쳐주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

다. 방새 골격의 재배열, 근육의 이완, 건강한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에 편편한 3면 경첩 기능을 더해 스프링 연결이 부드럽다. 일반 스프링에 비해 62%나 더 강하게 연결된다. 좌우간의 스프링 독립성을 향상시켜 옆 사람의 움직임 전달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신체 하중을 분산시켜 신체 어느 부위에든 30mmHg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끔 설계돼 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압통점(Pressure Point)을 제거해 피로회복과 함께 혈액순환이 가능하다. 또한 스프링을 섭씨 300도의 고온에서 이중 열처리해 탄성과 내구성을 강화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등에서도 쉐리의 '스마트 럭셔리' 침대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프레임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쉐리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45% 신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자신의 커피 취향 저장 '똑똑한 바리스타'

좋은 커피를 마시려면 손이 많이 간다. 로스팅한 지 얼마 안된 원두를 사서, 분쇄하고, 적절한 온도에 맞춰 내려야 한다. 카페에 가면 커다란 장비로 이 일을 한다.

하지만 밀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이용하면 이 모든 것이 집안에서 버튼 한 번에 가능하다. 밀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올해 1월에 출시, 주로 주상복합과 고급빌라를 중심으로 2000세대에 보급됐다.

밀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원두 굵기 및 원두량, 물의 양과 온도까지 조절 가능해 원하는 커피의 농도와 맛을 버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 커피머신에 그라인더가 장착돼 입맛에 맞게 원두의 굵기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원두량은 최소 6g부터 14g까지 0.5g씩 총 17단계로 조절되며 물의 양과 온도도 조절된다.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입맛을 찾아주는 게 이 상품의 특징이다. 최적의 입맛을 찾으면 자신의 커피 취향을 저장할 수 있다. 최대 10명까지 커피 취향 저장이 가능하다.

커피 취향의 선택은 드립커피뿐이 아니다. 커피 추출과 우유거품 제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더블 히팅시스템을 장착, 버튼 한 번이면 에스프레소·카푸치노·라떼·마키아토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작동은 한국어를 포함한 24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PC에 연결해 실시간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밀레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은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스마트 자동세척기능'이 있어 정기적으로 자동세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커피머신 내부의 청소 시점과 물때제거 시점을 LCD 액정판에 자동으로 알려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스탠바이모드로 자동 전환되며 물 리필 여부도 자동으로 알려준다.

이 밖에 LED 조명장치는 야간에도 손쉽게 커피를 제조할 수 있게 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다. 가격은 504만2000원.

## 자동8단 변속기 등 중형차 '최초' 다수

BMW 뉴5시리즈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최적의 운전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명품 자동차의 가치와 실용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능 면에서는 발군이다. 중형차로서는 세계 최초로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한 것이 대표적. 세분화된 기어로 변속이 부드럽고 빨라졌고, 빠른 변속을 해 가속감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주행 때는 서라운드 뷰 기능을 적용해 주차나 폭이 좁은 도로주행에 적합한 시야를 확보하게 해준다. 서라운드 뷰 기능은 모니터에 차의 전후 상황을 나타내주는 기능이다. 운전대에는 속도계 등을 앞 유리에 띄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운전석, 조수석 독립 온도 조절 에어컨디셔너 기능을 탑재해 주행 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BMW 뉴5시리즈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넘어 주차에도 편안함을 준다. 새로 적용된 주차보조 시스템은 초음파 센서로 가능한 주차공간의 길이와 폭을 측정, 탐색한다. 주차공간을 찾은 후에는 직접 운전대를 움직여 주차를 한다. 차체로는 가볍고도 최고의 강도를 가진 소재를 사용했다.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초고강도 스틸을 사용해 평균 강성도를 약 55% 높였고, 엔진후드·도어·전면 패널·전면 스프링 지지대 등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차체의 무게를 약 23kg이나 줄였다.

BMW 뉴5시리즈는 4월 1일 출시됐으며 출시 1주일 만에 예약판매 포함 총 3000대가 판매됐다.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고객들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한 모델들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서 5시리즈와 함께 BMW코리아의 성공 신화를 계속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호 기자 / 윤형중 기자 / 김헌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2호(10.04.21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